

우리나라 도서관·박물관 소장 고지도의 유형 및 관리 실태 연구*

김기혁**

A Study on the Types and Management of Old Maps Collected by Library and Museum in Korea*

Kihyuk Kim**

요약 : 이 논문은 국내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의 유형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약 1,200종에 달하는 고지도들이 전국 39개 기관에 산재되어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기관의 설립 시기와 성격에 따라 고지도의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군현지도책과 대축척전도 등은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주로 소장되어 있었다. 군현지도책은 25종, 「청구도」는 10종, 「대동여지도」는 26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형태가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지도의 관리 실태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매우 다르다. 두 기관에서 모두 귀중본으로 취급되나 도서관에서는 서지 자료로 취급되며 열람 서비스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박물관 고지도는 유물 자료로 취급되어 보존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기관마다 고지도에 대한 서지 정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 상이하다.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의 해석과 공개 수준은 기관마다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장 기관의 설립 시기, 예산 규모에도 영향을 받으나 지도 전문 인력이 거의 없음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관리환경은 유물 성격을 띤 서지자료인 고지도의 체계적인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주요어 : 「청구도」, 「대동여지도」, 군현지도, 사서, 학예연구사

Abstract :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and management of old maps collected by library and museum in Korea. About 1,200 items of old maps are collected in 39 institutes. This distribution is due to the scatter during late Joseon period through Japanese imperialism period. Half and half of old maps are reserved in museum and library. Atlas of county maps are reserved mainly in Gyujanggak,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Library of Korea University. There are 10 copies of 「Cheonggu-do(青邱圖)」 and 25 copies of 「Daedongyeo-jido(大東輿地圖)」 put in together in all institutes. Forms of those maps in terms of size, picture and place names recorded are different between each other. Methods of management of those maps are different between library and museum. Old maps are treated as rare old books in library, but as traditional old picture in museum. Methods and levels of opening to public of maps are also different in each institute. More serious thing is that there is no specialist in old maps in most institutes.

Key Words : county old maps, rare books, 「Cheonggu-do(青邱圖)」, 「Daedongyeo-jido(大東輿地圖)」, librarian, curator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교수 국내 교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hkim@pusan.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지도는 그림으로 그려낸 역사 지리서이다. 지도는 관념의 세계에 있던 장소를 현실 세계로 끌어오으로써 장소간의 네트워크를 알 수 있게 하며, 위치·거리·방향과 장소성 등의 지리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인문학 및 사회·정치적인 담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Short, 2003). 우리는 고지도를 통해 과거에 고립된 것으로 보였던 각각의 지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관계하였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문적(文籍)의 나라라 할 만큼 지리지와 함께 지도가 많이 편찬되었다. 삼국·고려시대부터 제작된 지도는 조선시대 들어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었고, 그 형태도 다양하였다. 1402년(태종 2)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지도이다. 조선 후기에는 읍지류 등이 편찬되면서 군현지도를 엮은 지도첩들이 편찬되었으며 많은 강역도와 관방도 등이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대축척 지도 발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정사기의 『동국지도』, 김정호의 『청구도』(1834)와 목판본 『대동여지도』(1861)에 담겨진 지리 정보는 이들 지도 제작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고지도들은 당시의 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지도 제작 수준, 그리고 강역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일본과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고 있었으나 『천하도』와 군현지도책 등은 양국과 다른 독특한 발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외국 지도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Harley, 1994).

우리나라의 고지도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지도의 상태, 종류, 제작 연대, 계열 및 특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지도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고지도들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원활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지도는 국가에서 제작·관리되었으나 한말

지도 관리 체계가 허술해지면서 민간에 유출되고, 때로는 모사되기도 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 많은 지도들이 일본 등의 외국으로 유출되었다. 해방 이후 국·공립·대학 도서관과 박물관을 중심으로 고지도들이 다시 수집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소장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고지도 연구는 전문 인력이 있는 규장각 등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국가의 지원에 의해 다른 기관의 고지도들이 영인·보급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부산광역시¹⁾와 경상남·북도의 각 시군을 그린 군현지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국 30여개 기관에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지도의 종수도 기존의 목록집에 소개된 것보다 훨씬 많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 소장된 고지도들이 서로 모사 관계이며, 심지어는 동일한 고지도가 분리되어 소장된 경우도 확인되었다.

고지도 제작 수준이 과거의 과학 수준이라면, 이의 관리 및 연구 수준은 현재 학문 수준의 척도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역에 대한 수호 의지의 척도이기도 하다. 고지도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전국 각 기관의 고지도 소장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들 고지도들이 어떻게 관리되면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고지도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전체 목록이 정리됨으로써 한국학으로서의 고지도 연구 수준을 높이고, 또한 지역과 장소, 영토 문제 연구에 있어서 고지도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및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 자료 중 1910년 이전에 제작된 고지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지도의 수록 내용에 대한 정보는 기존에 편찬된 목록 및 도록집과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에서 제작한 『한국 고지도 목록 데이터베이스』(이

하 ‘국편 DB)를 이용하여 정리되었다’). 국편에서는 1994년 전국 각 기관에 소장된 고지도 정보를 종합하기 위해 한국사 연구 지원과제로 고지도 DB 구축을 시도하였다³⁾. 이 사업에서는 조선시대 편찬된 고지도들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였고 부분적으로 1910년 이후의 지도도 포함하였다. 대상 자료는 공공기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인 소장 지도도 일부 포함되었다. 전국 23개 기관에 소장된 1,044종의 고지도 정보를 상세히 정리함으로써, 해방 이후 편찬된 고지도 목록 중 가장 충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육사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 등 10여개 기관과 이후에 설립된 서울역사박물관 등의 기관이 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다. 또한 필자가 주요 기관에 대한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편 DB에 수록된 고지도 종수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⁴⁾.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이 발행한 자료를 통해 국편 DB의 내용을 보완하고 누락된 기관의 고지도를 정리를 통해 국편 DB의 23개 기관을 포함한 39개 기관이 소장한 1,202⁵⁾종의 고지도가 연구 대상이 되었다⁶⁾.

기관별 소장 고지도의 종수는 표 1과 같다. 고지도는 도서관이 568종, 박물관이 634종을 소장하고 있어 두 기관에서 비슷한 비율로 소장되어 있다. 도서관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국·공립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으로 나뉘어진다. 국·공립 도서관 중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이 223종으로 가장 많은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이 112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장서각’)이 31종, 국편이 6종을 소장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 중 고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한 기관은 고려대학교 도서관(115종)이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55종, 성균관대 존경각, 영남대 도서관이 각각 8종, 5종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국·공립 박물관과 대학 박물관으로 나뉘어진다. 국공립 박물관 중 국립중앙박물관이 107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서울역사박물관이 51종⁷⁾, 간송미술관이 47종이다. 대학 박물관으로서는 영남대 박물관이 150종으로 가장 많고, 성신여대 박물관 67종, 고려대 박물관이 46종 순이다.

표 1. 연구자료 : 기관별 소장 고지도 종수

소장기관	종수	소장기관	종수	소장기관	종수
<국·공립 도서관>	372종	<국·공립·개인 박물관>	264종	15. 개인 및 기타*	6
1. 규장각*	223**	1. 국립중앙박물관*	107	16. 토지박물관	4
2. 국립중앙도서관*	112	2. 서울역사박물관**	51	<대학박물관>	370종
3. 장서각*	31	3. 간송미술관*	47	1. 영남대 박물관*	150
4. 국사편찬위원회*	6	4. 온양민속박물관*	14	2. 성신여대 박물관*	67
<대학도서관>	196종	5. 경기도 박물관	13	3. 고려대 박물관*	46
1. 고려대학교 도서관*	115	6. 국립민속박물관*	5	4. 육사 박물관	32
2. 서울대학교 도서관*	55	7. 호암미술관*	5	5. 경희대 혜정박물관	28
3.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8	8. 부산시립박물관	3	6. 송실대 박물관*	23
4. 영남대학교 도서관*	5	9. 국립전주박물관*	3	7. 서울시립대 박물관	10
5. 이화대학교 도서관*	5	10. 거창박물관	3	8. 서울대학교 박물관*	9
6. 부산대학교 도서관*	4	11. 양산 대성암	1	9. 동아대학교 박물관	4
7. 연세대학교 도서관	2	12. 남해 아천박물관	1	10. 성균관대 박물관	1
8. 동국대학교 도서관*	1	13. 김해대성박물관	1	총 계	1,202
9. 경북대학교 도서관	1	14. 화봉 책 박물관	1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지도 목록 데이터베이스

**국편 DB에서는 1872년 지방군현지도를 낱장으로 정리하였으나 본 연구서에서는 단일 종수로 간주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소장 고지도의 특성은 기관별 고지도의 목록 정리, 유형분류, 상세 서지 정보 정리를 통해 파악되었고, 관리 실태는 고지도 보존·열람 및 관련 사업 내용을 통해 조사되었다. 고지도 목록과 지도 정보에 대한 내용은 국립 DB와²⁹⁾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목록 및 도록집에 수록된 서지학적인 내용 외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이미지와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고 일부 기관의 경우 방문을 통해 지도를 열람하였다.

이와 같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분류에 앞서 기존 연구에서의 분류 방법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시도하였다(2장에서 후술). 기관별 소장 고지도의 특성은 유형별 보유 종수를 통해 비교하였으며, 그 중 주요 고지도들에 대한 간략한 서지 정보를 소개하였다. 이후 고지도 발달사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현지도책과 『청구도』, 『대동여지도』 등의 대축척전도를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들 지도는 대부분 책자식으로 되어 있어 도엽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지도 관리 내용은 관리 부서 및 인력, 고지도의 열람 및 공개 방법과 도록집 발행과 정보화 사업 등의 고지도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내용은 기관의 방문을 통한 면담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각 기관에서 발행한 목록집과, 도록, 전시회 자료 등이 정리되었다. 정보화 사업을 통한 이미지의 서비스 내용은 2006년 2월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리되었다.

2. 우리나라 고지도 목록집의 편찬과 유형 분류

1) 고지도 목록집 편찬

우리나라 고지도 목록집은 소장 기관이 주관하여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기관별로 서지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 소장된 고지도들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집을 구축하거나 주요 지도를 소개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어 왔다. 최근에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 고지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에 소장된 지도들이 함께 소개되기도 하였다.

(1) 전체 기관 목록 및 도록집

우리나라 고지도의 목록집 간행의 효시는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에서 개교를 기념한 전시회에서 제작된 목록집이 시초이다(5장 표 14 참조). 각 기관에 소장된 고지도 목록의 종합을 시도한 출판물과 관련 도록은 표 2와 같다.

해방 이후 국내 각 기관에 소장된 고지도의 목록집 편찬을 시도한 것은 1977년 한국도서관학연구회에서 발행한 『한국고지도』가 효시이다.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되었고, 원색 도판 17종, 흑백 도판 99종 등 총 116종의 지도와 해제를 수록하였다. 당시 편찬 책임자였던 이찬 교수(1977)는 “지도 선정에 있어서 전국 소장처를 망라하려 했으나 시간적인 여유와 기술적인 문제로 흑백 사진 자료는 대부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사용하였고, 원색판 지도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표 2. 한국 고지도 목록 및 도록집

	간행 기관	연도	목록 및 도록집	수록 내용 및 비고
목록집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7	『韓國古地圖』	이찬 편
	國立地理院	1979	『韓國古地圖目錄』	목록집·비매품
	國史編纂委員會	1995	『韓國古地圖目錄 DB』	1,044종 고지도 DB
서적	해안 出版社	1999	『韓國古地圖發達史』(101-136쪽)	이상태 저
도록	汎友社	1991	『韓國의 古地圖』	이찬 저, 일문·영문판간행(2005)
	大韓地理學會	2000	『韓國의 地圖-過去·現在·未來』	허우궁·이재진 저(영문판 동시간행)

소장 지도를 비롯하여 여러 소장처 지도 중에서 선정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책의 제3편에 간송문고, 고려대 도서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도서관, 성암 고서 박물관, 송전대 도서관, 영남대 도서관, 장서각 등 9개 기관의 고지도 목록을 수록하였다. 2년 뒤인 1979년 건설부 국립지리원이 『한국고지도목록』을 발행하였다. 지도 9종을 흑백 도판으로 수록하고 331종의 지도에 대해 지도 이름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서지사항을 소개하였다. 부록으로 고려대 도서관 등 11개 기관의 지도 목록을 소개하였다.

1994년 국사편찬위원회는 전술한 『한국 고지도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국 23개 기관에 소장된 1,044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도별 31개 조사 항목에서 울릉도, 독도, 천지, 동해, 토문강 등과 관련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짧은 기간에 사업이 이루어져 DB로서 갖추어야 할 자료의 통일성이 미진하여 이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⁹⁾. 또한 각 기관에서 고지도가 대부분 귀중본으로 소장되어 있어 일부 사설 기관에서 외부 공개를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상태(1999)는 『한국고지도발달사』를 출간하면서 전국 5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347종의 고지도 목록을 36쪽에 걸쳐 소개하였다. 1991년에는 범우출

판사가 이찬 교수에게 의뢰하여 전국 기관에 소장된 주요 고지도를 수록한 『한국의 고지도』를 발행하였다. 이 도록집에는 19개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고지도를 대상으로 원색 도판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2005년에 일문판과 영문판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2000년에는 대학지리학회와 세계지리학대회를 기념하여 『한국의 지도』(한·영판)를 발행하여 6개 기관이 소장한 106종의 고지도 도판을 소개하였다.

(2) 지역별 고지도 도록 편찬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와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역을 그린 고지도가 도록으로 간행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특정 지역을 그린 고지도를 모아 간행된 출판물은 표 3과 같다. 지역 고지도를 출간하는 사업은 서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89년 삼성출판사에서 18개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한 48종의 고지도를 수록한 『서울의 고지도』를 발간하였다. 이어서 범우사에서는 이 자료를 보완하여 『정도 600년 서울 지도』를 출간하였다. 1995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에서 『서울의 옛지도』를 간행하였다. 이 지도집은 국내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된 서울 지도뿐만 아니라 외국에 소장된 일부 자료까지 수록하였다.

표 3. 지역대상 고지도 편찬 도록

기관	연도	도록	수록 내용 및 비교
三省出版社	1989	『서울의 古地圖』	허영환 저
汎友社	1994	『定都 600年 서울 地圖』	허영환 저
서울학研究所	1995	『서울의 옛地圖』	이찬·양보경 저
郷土文化振興院	1994	『全南의 옛地圖』	김정호 저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6	『濟州의 옛地圖』	특별 전시회 관련 도록
唐津郡	1997	『唐津의 옛地圖』	김추운·양보경 저
水源市	2002	『水原의 옛地圖』	이상태 편찬
江華郡	2003	『江華의 옛地圖』	이상태 편찬
京畿文化院	2005	『京畿道の 옛地圖』	오상학 저
釜山地理研究所	2004	『釜山·慶南 市郡別 古地圖』	보고서(비매품)
釜山地理研究所	2005	『大邱·慶北 市郡別 古地圖』	보고서(비매품)
釜山地理研究所	2006	『鴨綠江·豆滿江 古地圖』	보고서(비매품)

2) 고지도 유형 분류

1994년에는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진흥원에서 『전남의 옛지도』를 발간하였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1995년 제주도를 그린 고지도를 대상으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제주의 옛지도』를 발간하였다. 10개 기관에 소장된 제주도를 그린 지도가 소개되어 있다. 1997년에는 『당진의 옛지도』, 2002년 『수원의 옛지도』, 2003년 『강화의 옛지도』가 간행되었고 2005년에는 경기문화원에서 『경기도의 옛지도』와 『경기도의 근현대 지도』를 출간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을 단위로 하는 도록의 간행 사업은 고지도의 학문적·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부산대학교 부설 부산지리연구소는 2004년부터 『부산·경남 시군별 고지도』(8권)·『대구·경북 시군별 고지도』(8권)·『압록강·두만강 고지도』 보고서를 연속적으로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국 기관에 소장된 각 군현지도와 관방지도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는 2004년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07년 『부산고지도』 도록을 발간 예정에 있다.

고지도의 유형 분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서지학에서는 서지 형태를 중심으로, 미술학에서는 표현 양식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이상태(1999)는 지도의 크기와 형식, 연대, 방식, 기법을 기준으로 고지도의 유형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지리학에서는 대부분 묘사된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의 예는 표 4와 같다.

이찬(1977)은 천하도, 관방지도, 전도, 도별도, 분도, 기타 지도 등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세계지도는 천하도에 포함시켰다. 이어서 1991년 그의 연구에서는 천하도·관방지도·조선전도 및 도별도·도성도·군현도·회화지도·산도로 분류하여 이전에 비해 도성도, 군현도, 회화지도를 별도로 분류하였다. 두 시기간의 이와 같은 차이는 각 기관에 소장이 확인된 군현지도와 회화식 지도들이 적지 않게 파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천문도의 경우 천하도에 포함시킨 것이 주목된다. 규장각에서는 1993년 소장 고지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형 분류를 시도하여 관방도, 군현도합도별도, 궁궐도, 기타, 도별도, 도별

표 4. 한국 고지도 목록·도록집에서의 고지도 유형 분류

주요저자	연도	목록 및 도록집	고지도 유형 분류
李燦	1977	『韓國古地圖』	①천하도 ②관방지도 ③전도 ④도별도 ⑤분도 ⑥기타 지도
李燦	1991	『韓國의 古地圖』	①천하도 ②관방지도 ③조선전도 및 도별도 ④도성도 ⑤군현도 ⑥회화지도 ⑦산도
서울대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①천하도 ②관방도 ③전도 ④도별도 ⑤분도(군현도) ⑥기타
奎章閣	1993	『奎章閣 古地圖 目錄』	①관방도 ②군현도합도별도 ③궁궐도 ④기타 ⑤도별도 ⑥도별 도내군현도 ⑦분도·군현도 ⑧산도 ⑨전도 ⑩천하도(세계지도) ⑪중국지도 ⑫일본지도
國史編纂委	1995	『韓國古地圖目錄 DB』	①천하도 ②전도 ③도별도 ④분도(또는 군현도) ⑤관방도 ⑥기타(산도, 궁궐도, 지적도, 배치도 등) ⑦중국지도 또는 일본지도
楊普景	1997	『古地圖와 歷史研究』	①천하도(세계지도) ②전도 ③도별도 ④분도(군현도) ⑤관방도 ⑥외국지도 ⑦도성도 ⑧궁궐·관야도 ⑨산도 ⑩기타
嶺南大博物館	1998	『韓國의 옛地圖』	①천하도 ②조선전도 및 도별도 ③도성도 ④군현도 ⑤관방도 ⑥산도 및 경승도 ⑦외국도 ⑧일제의 한국지도
大韓地理學會	2000	『韓國의 地圖-過去·現在·未來』	①세계지도 ②조선전도 ③도별도 ④도성도 ⑤군현지도 ⑥관방지도 ⑦특수지도 및 기타

도내군현도, 분도·군현도, 산도, 전도, 천하도(세계지도), 중국지도, 일본지도 등 1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도별 서지 정보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천문도는 천하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편 DB(1995)에서는 지도 유형을 천하도, 전도, 도별도, 분도(또는 군현도), 관방도, 기타(산도, 궁궐도, 지적도, 배치도 등)로 구분하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는 중국지도 또는 일본지도로 분류하였다. 양보경(1997)은 천하도(세계지도), 전도, 도별도, 분도(군현도), 관방도, 외국지도, 도성도, 궁궐·관아도, 산도, 기타 등 10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서울대 도서관(1981)과 국편 DB 분류 방법을 바탕으로 하고 도성도, 궁궐·관아도, 산도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영남대 박물관(1998)에서는 소장 고지도의 도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천하도, 조선전도 및 도별도, 도성도, 군현도, 관방도, 산도 및 경승도, 외국도, 일제의 한국지도 등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른 분류와는 다르게 일제의 한국지도가 별도 유형으로 된 것은 이 기관에 이들 지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지리학회(2000)는 세계지도, 조선전도, 도별도, 도성도, 군현지도, 관방지도, 특수지도 및 기타로 분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각 연구별로 고지도 유형 분류가 다른 것은 고지도가 워낙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동일한 지도첩에서도 세계지도와 군현별 지도가 동시에 그려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류 대상이 되는 고지도 모집단의 수량과 성격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제작된 고지도는 편찬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다. 제작자는 지도를 그리기 전에 어느 지역을 어떤 목적으로 그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 를 고민하게 된다. 특히 앞의 질문은 지도가 의사 소통의 도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지도의 경우 전통적인 제작 방법은 19세기 말까지 이어지며, 이와 동시에 일본인에 의해 적지 않은 지도들이 그려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도 분류는 누가 그렸는가에 의해서도 지도의 성격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류 방법을 바탕으로 하되 어느 지역을 무슨 목적으로 그렸는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재시도하였으며, 동시에 일본인이 그

린 지도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 지역, 제작 목적 및 주제 등을 기준으로 하여 2차 분류까지 시도한 후 본 연구에서는 1차 분류를 대상으로 고지도 유형의 기관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유형별 지도는 표 5와 같다.

① 세계지도(세계 지도·천하도·천문도) : 이 유형에는 서양식 세계지도, 동양식 세계지도, 천하도, 천문도 및 근대식 세계지도가 포함된다. 서양식 세계지도는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1602) 이후 이의 영향을 받은 지도들이 이에 속한다. 동양식 세계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 이후 제작된 지도들이다. 천하도는 17세기 이후 우리나라 이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로 세계를 묘사한 지도이다. 천문도¹⁰⁾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천전도』 등이 해당된다.

② 동아시아지도 : 동아시아 전체와 중국 및 일본을 그린 지도가 이에 해당된다. 동아시아도는 중국, 조선, 일본을 함께 그린 지도와 중국 중심의 지도가 있다. 중국지도는 중국전도·역사지도·지방지도 등이 해당된다. 일본지도는 전도와 지방지도가 있다.

③ 조선전도 : 조선 전체를 그린 지도는 『동람도』 등 소축척전도와 『대동여지도』 등 대축척전도가 있다. 소축척전도의 경우 대부분 낱장으로 되어 있다. 『동람도』, 정척·양성지형 지도, 김수홍 제작 지도, 정상기형 『동국지도』, 『해좌전도』, 『대동전도』 및 한말 근대식 전도가 이에 속한다. 대축척전도의 경우 『청구도』 및 『대동여지도』 목판본 및 필사본 지도와 『동여도』 등이 있다.

④ 도별도 : 조선 팔도를 그린 지도는 대부분 지도첩의 형태로 되어 있다. 『동람도』나 천하도가 삽입된 『여지도』등의 도별도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물론 각도의 형태가 실제와 매우 다르게 그려졌다. 이와 같은 오류를 극복한 지도가 정상기형의 제작한 『동국지도』이다. 일부 지도는 낱장으로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정상기형의 도별도에서 분리되었거나, 모사된 지도들이다.

⑤ 군현지도 : 대부분 지도책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지도는 낱장으로 그려져 있다. 군현지도는 회화식 군현지도, 비변사인 1리 방안지도, 지방에서 그린 군현지도, 20리 방안지도로 분류된다(김기혁, 2005). 낱장

표 5. 고지도 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주요 지도
① 세계 지도 · 천하도 · 천문도	11. 서양식 세계지도	「곤여만국전도」·「곤여전도」·「지구전후도」
	12. 동양식 세계지도	「여지전도」·기타 지도
	13. 천하도 계열	「천하도」
	14.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기타 천문도
② 동아시아 · 지도	21. 동아시아도	동아시아 전체 지도
	22. 중국지도	중국전도·중국 역사지도·중국지방지도
	23. 일본 지도	일본전도·일본 지방지도
③ 조선 전도	31. 소축척전도	조선전도·조선역사지도·동람도형 전도·정척,양성지 지도
		정상기형 전도·해좌전도·대동여지전도·근대식 전국 전도
	32. 대축척전도	「청구도」·필사본 및 목판본 「대동여지도」·「동여도」 등
33. 기타 조선전도	「동여비고」 등	
④ 도별도	41. 지도첩	동람도형 도별도·천하도 삽입 도별도·정상기형 도별도·기타 도별도
	42. 낱장 도별도	
⑤ 군현지도	51. 군현지도책	회화식군현지도·비변사인 1리방안지도·20리방안식군현지도
	52. 지방군현지도	1872년 지방군현지도 및 기타 지방군현지도
⑥ 주제도· (관방도·도 성도·기타)	61. 관방지도	북방 관방도·해안 관방도·도서 관방도
	62. 도성도	한양도·기타 도성도·궁궐도·군사지도·한양 주제도·기타
	63. 기타 주제도	산지·산림도·봉수도·목장지도·풍수도·산도·농도·근대식 주제도
⑦ 일본인지도	일본인 제작 지도	세계지도·동아시아 지도·일본전도, 지방도·조선전도·조선도별도·지방도·군사도 및 해로도

으로 그려진 군현지도는 1872년 제작된 지방군현지도가 대표적이다.

⑥ 주제도(관방·도성·궁궐·주제도·기타) : 특정한 목적에 의해 그린 지도로 관방도·도성도, 궁궐도 및 주제도 등이 해당된다. 관방지도는 북방 국경 관방도와 해안 및 도서 관방도로 구분된다. 도성도는 한양도가 대부분이며 궁궐도로는 「동궐도」가 대표적이다. 주제로로 봉수망도, 목장지도, 풍수도, 산도, 농도 등이 있다.

⑦ 일본인 지도 : 근대 측량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인이 제작한 지도가 이에 해당된다. 세계지도, 동아시아 지도, 일본전도 및 지방도, 조선전도, 조선 도별도 및 지방도, 군사도·해로도 등이 있다.

3. 도서관 소장 고지도의 유형

1) 국·공립 도서관

(1) 소장 고지도 유형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공립 도서관에 소장된 고지도는 표 6과 같다. 총 372종으로, 이중 지방군현지도가 103종으로 가장 많고 도별도가 89종, 관방도가 68종이 있다. 이외에 일본 근대지도와 조선전도가 각각 43종과 30종이 소장되어 있다. 기관별 보유 종수로 볼 때 규장각¹⁾이 가장 많은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다. 소장 고지도는 223종, 1,000여책(첩), 6,000여 도엽에 달하며 지도 제작 시기는 대개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있다. 주요 고지도로는 세계지도로 「곤여전

표 6. 국·공립 도서관 소장 고지도 유형

소장기관	종수	세계지도	동아시아 지도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주제도	일본인 지도
규장각	223	4	14	20	56	61	41	27
국립중앙도서관	112	1	7	13	25	35	18	13
장서각	31	3	-	3	7	7	9	2
국사편찬위원회	6	-	-	4	1	-	-	1
계	372	8	21	30	89	103	68	43

도』와 목판(보물 822호)가 있다²⁹⁾. 최한기가 1834년(순조 34) 제작한 『지구전후도』는 흑백 목판본으로 되어 있으며 1책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방도로 『요계관방도』·『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조선정계비강역약도』·『경상좌수영지도』 등이 있다. 이외에 한국의 고지도 발달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지도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³⁰⁾은 112종의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다. 책자식으로 된 것이 많아 전체 도엽수는 약 4,000매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지도로 『곤여전도』와 중국 지도인 『삼성황하전도』 등이 있으며 도별도로 정상기형 도별도가 많다. 관방지도로 울릉도 수토 지도인 『울릉도 도형』이 있으며 이외에 『서북강계도』, 『고구려국도』, 『북관장파지도』, 『영고탐도 부 백두산도』, 『영남호남연해형편도』, 『영고탐총람도』 등이 있다. 이 중 『고구려국도』는 영남대 박물관 소장본과 동일한 내용이다.

장서각³¹⁾에는 31종의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세계지도로 『곤여전도』와 『여지전도』가 있으며, 도별도로 서 천하도가 삽입된 지도첩과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이본이 있다. 소장 지도 유형 중 가장 많은 지도는 관방 지도로, 이 중 『아국여지도』는 러시아령이 된 녹둔도 일대를 그린 관방지도이다. 이외에 조선 왕실의 능도 및 산도 등이 소장되어 있다. 한편 장서각에는 1914-1917년 일제에 의해 제작된 1:50,000 지형도가 거의 전질이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³²⁾는 6종의 고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조선전도로 『조선팔도지도』, 『지도(조선)』, 『지도』와 임자평(林子平)이 제작한 『삼국접양지도』 등이 있다.

(2) 군현지도책 및 대축척전도

국·공립 도서관에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군현지도책과 대축척전도 등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이는 이들 기관이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에 설립되어 일찍부터 지도를 보유하고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소장되어 있는 지도 목록은 표 7과 같다. 규장각에는 9종의 군현지도책 외에 1872년 편찬된 지방군현지도로 458매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는 1871년 전국의 읍지가 편찬된 후, 전국 각 지역의 군사시설 및 지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다. 지도책 중 회화식 군현지도에 해당되는 것은 『경주·안동 도회좌통지도』·『해동지도』·『광여도』·『여지도』·『지승』 등이다³³⁾. 1리 방안이 그려진 지도로는 『비변사인 영남지도』을 비롯하여 각 도별 군현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20리 방안이 그려진 방안식 지도로 『조선지도』·『팔도군현지도』가 있다. 유사한 유형의 지도가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른 기관에도 소장되어 있어 이들 간의 비교 연구는 조선 시대 지도 발달 과정을 밝히는 좋은 자료이다.

『청구도』는 2종이 소장되어 있다. 『청구요람(4709-21A)』은 2책으로 되어 있으며 영남대 도서관에 소장된 『청구도』와 유사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청구도』와 일부 합본하여 영인·보급된 고지도이다. 『청구도(4709-21)』는 4책으로 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형식의 청구도이다. 조협승(曹協承)이 서문을 썼으며 표현 양식은 장서각 소장 『청구도』와 유사하다.

『대동여지도』는 7종이 소장되어 있다. 『대동여지도(奎 10333)』는 1861년 제작된 채색 목판본 지도로 각 첩의 첫 면에 학부도서(學部圖書) 등의 도장이 찍혀 있

표 7. 국·공립 도서관 소장 군현지도책 및 대축적전도

기관	유형	지도명	청구기호	내용 및 비고
규장각	군현지도책	「海東地圖」	古大 4709-41	8책, 회화식지도
		「輿地圖」	古 4709-68	6책, 회화식지도
		「(備邊司印)郡縣地圖」	奎 12154-12158	1리 방안식 지도
		「朝鮮地圖」	奎 16030	20리 방안식지도
		「1872地方郡縣地圖」	奎 10342-	(458매) 鎭堡地圖 포함
		「廣輿圖」	古 4709-58	7책, 회화식지도
		「八道郡縣地圖」	古4709-111	3책, 20리 방안식지도(3개도)
		「地乘」	15423	회화식지도
		「慶州都會左通地圖」	古 4709-26	회화식 지도
	「安東都會左通地圖」	古 4709-25	회화식지도	
	청구도	「靑邱圖」	古4709-21	4책
	대동여지도	「靑邱要覽」	古4709-21A	(건곤)2책, 曹協承序
		「大東方輿全圖」	奎 10341	22첩, 채색 필사본
		「東輿圖」	奎 10340	22첩, 채색필사본(면지명 추가)
		「大東輿地圖」	古 4709-6	22첩, 갑자년 수정본
		「大東輿地圖」	奎 10333	22첩, 채색목판본
		「大東輿地圖」	古 4709-5	22첩, 채색목판본(1, 13帖 缺)
		「大東輿地圖」	奎 12380	22첩, 모사필사본(펜글씨 삽입)
	국립중앙도서관	군현지도책	「輿地圖」	古朝 61-3
「各邑地圖」			古朝 61-14	1冊 126圖(慶尙道·全羅道)
「東國地圖 三」			승계貴 2702-22	방안식 지도
「八道地圖」			古朝 61-21	6책, 방안식 지도
「海東輿地圖」			古 2107-36	20리 방안식 지도
「八道輿地圖」			古 2702-14	5冊, 「輿地圖」와 동일 내용
「大韓地圖」			古朝 61-27	6冊, (표제) 「地圖」
청구도		「靑邱圖」	古朝 61-80	(乾·坤)2책, 채색필사본, 28층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全圖」	古朝 61-02	22첩, 채색 목판본
		「大東輿地圖」	古朝 61-01	18첩, 채색 필사본
장서각	군현지도책	「地圖」	K2-4583	4책, 방안식지도
		「關西·關北地圖」	K2-4544	1리 방안식 지도(방안 없음)
		「嶺南圖」	K2-4564	1리 방안식 지도
	청구도	「靑邱圖」	K2-4587	(乾·坤)2책, 채색필사본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K2-4597 1-2	목판본 2종	
국사편찬위원회	대동여지도	「東輿圖」	B16JB1-2	22첩중 12첩 소장, 채색필사본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B16JB1-1	22첩

으며 현재 정보화 사업으로 공개되어 있는 지도이다. 국내에 소개된 대부분의 『대동여지도』와 동일한 형태이다. 『대동여지도(古 4709-5)』는 제1첩과 13첩이 결집인 채색 목판본 지도이다. 『대동여지도(古 4709-6)』는 1864년(고종 1)에 수정된 『대동여지도』 재간본이다. 표지에 ‘당저원년갑자’로 판각되어 있으며 내용도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있다. 『대동여지도(奎 12380)』는 채색 필사본 지도로 『지도유설』이 펜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등 모사의 수준이 낮다. 『대동여지도(古 4709-4)』도 모사된 채색 필사본으로 제1첩 중 교동(喬桐) 서쪽의 도서를 그린 2면이 누락되어 있다. 『대동방여전도(奎 10341)』은 21첩으로 된 채색 필사본으로 『대동여지도』 목판본과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하천이 겹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지명 누락도 많이 확인되나 글씨 품격으로 보아 중앙의 기관에서 제작된 지도로 보인다. 『동여도(奎10340)』는 23첩으로 된 채색필사본 지도이다. 현재 정보화 사업으로 이미지가 서비스되는 지도이며 동일한 지도가 서울역사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 비하여 7천여 개의 지명이 추가로 수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군현지도책으로 7종이 있다. 이중 회화식 군현지도책으로 『여지도(古朝 61-3)』, 『각읍지도(古朝 61-14)』, 『팔도지도(古2702-14)』, 『대한지도(古朝61-27)』 등이 있으며 이들 내용은 규장각 소장 지도들과 유사하다. 20리 방안식 지도로 3종이 있다. 이중 『팔도지도(古朝 61-21)』는 규장각의 『팔도군현지도』와 유사하며 팔도 군현지도책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동국지도 三(승계貴2702-22)』는 경상도 군현을 그린 20리 방안식 지도이나 다른 지도와는 달리 방안에 숫자가 적혀 있고 지명이 많다. 『해동여지도(古 2107-36)』도 2-3개의 군현이 한 도엽에 그려져 있는 20리 방안식 군현지도이다. 이 지도는 군현지도에서 도별 지도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지도로 추정된다.

대축척전도로 『청구도』 1종과 『대동여지도』 2종이 있다. 『청구도(古朝61-80)』는 건·곤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색 필사본 지도이다. 곤권 말미에 『군국총목표(統計)』가 수록되어 있다. 책 내용 중 일부가 규장각 소장 『청구요람』과 합본·영인되어 보급되었다. 『대동여지도(古朝61-01)』는 22층의 채색 목판본 지도로 다

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와 유사하다. 『대동여지전도(古朝61-02)』는 18층으로 되어 있는 채색 필사본 지도이다. 그 내용도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차이가 있어 검토가 요망되는 지도이다. 한편 고전운영실에는 일본 소장 군현지도인 『여지편람』과 필사본 『대동여지도』인 『조선도』(일본 일본 오오사카 부립도서관 소장) 및 모사본 『대동여지도』가 마이크로 필름과 영인본으로 소장·열람되고 있다. 이 모사본은 주기가 첨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장서각에는 3종의 군현지도책이 있다. 그중 『지도(K2-4583)』는 20리 방안식 지도이다.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군현도가 일정한 순서없이 동일한 도면에 2-8개까지 그려져 있다. 글씨체와 그림의 표현 방법이 매우 정교하고 단아한 느낌을 주고 있다. 『영남도(K2-4564)』는 1리 방안이 그려진 지도이다. 전체적인 구성과 크기는 규장각 소장의 비변사지도와 유사하나 주기 내용은 상이하다. 원래 4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3질만(우상, 우하, 좌상) 남아 있다. 제작 시기는 1765년으로 추정하고 있다(박정혜·이예성·양보경, 2005). 『관서·관북지도(K2-4544)』는 1리 방안식 지도로 보이나 방안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청구도(K2-4587)』는 1종이 소장되어 있다. 채색 필사본 지도로 『경위선표목록』-『주현총도목록』-『제표총목』-『팔도분표』에 이어 각 도별 『방안도』가 그려져 있다. 『대동여지도(K2-4597 1-2)』는 22첩의 채색 목판본 지도로, 2본이 동일한 청구 기호로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동여도』는 규장각 지도와 동일한 내용이나 22첩중 12첩만 소장되어 있는 결본이다. 『대동여지도(B16JB-1)』는 22첩으로 구성된 흑백 목판본 지도이다. 표지에 ‘조선사편수회도서관’이 찍혀 있다.

2) 대학 도서관

(1) 소장 고지도 유형

전국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고지도는 표 8과 같다. 196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중 일본 근대지도가 94종으로 가장 많다. 도서관중 가장 많은 지도를 보유한 곳은 고려대 도서관이다. 115종을 소장하고 있으며 귀중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일본 근대지도가 많은 것은

표 8. 전국 대학 도서관 소장 고지도 유형

소장기관	종수	세계지도	동아시아 지도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주제도	일본인 지도	분류 미상
고려대 도서관	115	3	3	4	25	27	10	43	-
서울대 도서관	55	-	-	-	1	2	1	51	-
영남대 도서관	5	-	1	4	-	-	-	-	-
부산대 도서관	4	-	-	1	2	-	1	-	-
이화대 도서관	5	-	-	1	3	-	-	-	1
연세대 도서관	2	-	-	-	-	1	1	-	-
동국대 도서관	1	-	-	-	1	-	-	-	-
경북대 도서관	1	-	-	-	-	-	1	-	-
성균관대 존경각	8	2	1	3	1	-	1	-	-
계	196	5	5	13	33	30	15	94	1

주로 일제 강점기중 지도가 수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지도로 『곤여전도』 등의 3종, 동아시아 지도 3종 및 정상기형 『동국지도』 등의 도별도를 25종 소장하고 있다.

서울대 도서관에는 55종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 일본인에 의해 그려진 지도들로 일제 강점기 때 수집된 지도로 보인다. 규장각이 도서관에서 분리되면서 규장각 도서를 제외한 일본 지도를 도서관에서 관리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남대 도서관에는 5종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동아시아 지도인 『동양역사지도』외의 4종의 지도는 전부 대축척전도이다. 원래 많은 지도를 소장하였으나 박물관이 설립되면서 이관되었다.

부산대 도서관에는 4종의 지도가 있다. 도별도로서 채색 필사본인 『천하국도』와 목판본인 『요람집』이 있으며 이들 지도는 천하도가 삽입된 지도이다. 『정색도』는 목장지도이다. 숙종 당시 전국 목장의 위치와 지명을 주기한 지도로 충청도가 '공청도'로 되어 있다. 동일한 형태의 지도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 연대 도서관에는 관방지도인 『남한산성도』와 도별도인 『군읍열도』가 있다. 동국대 도서관에는 동람도류 도별 지도첩인 『조선팔도지도』가 있다. 경북대 도서관에는 『천하강산도』가 소장되어 있으나 내용은 미상이다. 성균관대 존경각에는 8종의 지도가 있다.

한말에 제작된 『세계지도』와 『대조선국전도』 및 『팔도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중국 지도와 조선 도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중숙(閔種淑)(1777-1834)이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군현지도책 및 대축척전도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군현지도책과 대축척전도는 표 9와 같다. 고려대 도서관에는 방안식 군현지도로 2종이 있다. 그중 『여지도(B-10 A-53)』는 규장각 소장 『조선지도』와 매우 흡사한 형태로 지도의 품격이 매우 뛰어나다. 『지도(B-10 A-52)』는 방안식 지도를 모사한 지도로 주기가 첨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나 수준은 낮다. 『지도초(B-10 A-199)』는 군현지도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지도이다. 고려대 박물관 소장의 『동국여도(2664)』와 매우 흡사한 형태로 보아 이 지도의 초본(草本)으로 추정된다. 『경상도지도(귀 710 v 1.2)』는 회화식 지도이다. 지도의 표현 양식과 구성 내용으로 보아 규장각의 『안동도회좌통지도』, 『경주도회좌통지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4종을 합치면 경상도의 각 군현지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원래 동시에 제작되었으나 이후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축척전도 중 『청구도(貴 511)』는 기우(奇遇) 2책으로 그려진 채색 필사본으로 『청구도제』-『법례』-『지도

표 9. 대학 도서관 소장 구년지도책 및 대축척전도

소장기관	유형	지도명	청구기호	내용 및 비고
고려대 도서관	군현지도책	『輿地圖』	B-10 A-53	2책, 방안식지도(4개도)
		『地圖』	B-10 A-52	4책, 방안식 지도 모사본(주기 수록)
		『地圖草』	B-10 A-199	(上中下)3책(下冊, 전라·함경·강원缺)
		『慶尙道地圖』 1,2	귀 710 v1,2	2책, 회화식 지도
	청구도	『靑邱圖』	貴 511	(奇·遇) 2책
대동여지도	『朝鮮古分道地圖』	B-10 A-83	4책, (모사) 채색 필사본	
영남대 도서관	청구도	『輿地圖』	古 981-1	(乾·坤) 2책(乾: 1-14)(乾:15-28)
		『靑邱圖』	古 9 ㄷ 981-1	(上·下)(규장각) 『청구요람』과 유사
	대동여지도	『靑邱全圖』	989-11 v23	22첩, 목판본
		『大東全圖』	989-11	22첩, (수정) 채색필사본
부산대 도서관	대동여지도	『大東圖』	2-11	22첩, 채색목판본
성균관대 존경각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B16JB	22첩, 채색 목판본(추정)

식」-「본조팔도주현도총목」-「도성도」에 이어 각 지역이 그려지고 말미에 「신라구주군현총도」-「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본조팔도위경합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조선고분도지도(B-10 A-83)」는 4책으로 그려진 채색 필사본 지도로 「대동여지도」를 모사한 지도이나 순서나 체계가 일정하지 못하다.

영남대 도서관 소장 지도는 지도 발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들이다. 「청구도」로 2종의 지도가 있다. 「여지도」(古 981-1)로 표제가 된 이 지도는 건곤(乾坤) 2책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청구도와는 달리 건책(乾冊)에 1-14층, 곤책(坤冊)에 15-18층이 그려져 있어 매우 독특하다. 지도 구성에서 「청구도제」(주서로 ‘崔漢綺沒’ 첨기)에 이어 「경위선표목록」-「주현총도목록」-「제표총목」-「팔도분표」에 이어 도별 방안도가 그려져 있다. 「청구도(古 9 ㄷ 981-1)」는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며 규장각에 소장된 「청구요람」과 동일한 형태의 지도이다. 「청구전도」(989-11 v23)는 22첩의 채색 목판본 지도이다. 「대동전도」(989-11)는 채색 필사본 지도로 대동여지도를 모사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있어 주목된다. 부산대학교에 소장된 「대동도(2-11)」와 존경각의 「대동여지도(B16JB)」는 22첩으로 된 대동여지도 목판본이다.

4. 박물관 소장 고지도 유형

도서관과 함께 우리나라 고지도 소장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곳은 박물관이다. 국공립 박물관과 대학 부설 박물관 및 개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부분 회화류 및 과학 자료로 분류되어 있다.

1) 국·공립·개인 박물관

(1) 소장 고지도 유형

국·공립 박물관(개인 포함)에 소장된 고지도 유형은 표 10과 같다. 14개 기관에 258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관방도, 주제도가 각각 53종, 51종으로 비중이 높다. 이외에 지방군현지도가 41종, 조선전도도 35종으로 적지 않게 소장되어 있다. 박물관 중 가장 많은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⁹⁾이다. 107종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군현지도가 29종으로 가장 많고 관방도·주제도가 24종, 조선전도도 20종이 있다. 주요 지도로는 세계 지도로 「천체운행설도(곤여전도 지지부분)」, 「전도(곤여전도)」와 중국지도로 「중국지도(천하제도)」, 와형(臥形) 조선지도로 「팔도전도」 등이 있으며 관방지도로 「요계관방도」, 「압록강변제도」, 「호남도서지도」 등이 있다.

표 10. 국·공립·개인 박물관 소장 고지도 유형

소장기관	종수	세계지도	동아시아 지도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주제도	일본인 지도	분류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107	4	4	20	17	29	24	4	5
서울역사박물관	51	8	2	11	2	1	6	19	2
간송미술관	47	1	-	1	23	2	3	3	14
온양민속박물관	14	1	2	2	4	2	2	1	-
경기도 박물관	13	2	1	-	1	-	9	-	-
국립민속박물관	5	2	-	-	1	2	-	-	-
호암미술관	5	-	1	-	2	-	2	-	-
국립전주박물관	3	-	-	-	-	3	-	-	-
부산시립박물관	3	-	-	-	-	1	2	-	-
거창박물관	3	-	-	2	1	-	-	-	-
양산 대성암	1	-	-	1	-	-	-	-	-
남해 아천박물관	1	-	-	-	-	-	1	-	-
김해대성박물관	1	-	-	-	-	1	-	-	-
학봉책박물관	1	-	-	-	1	-	-	-	-
개인 및 기타	6	-	1	1	-	-	4	-	-
토지박물관	4	-	-	2	2	-	-	-	-
계	264	18	11	38	53	41	53	27	21

서울역사박물관⁹⁾은 최근 많은 고지도를 기증 받아 소장 지도 종수는 매우 많으나 공개 목록에는 51종만이 소개되어 있다. 이중 일본인 지도가 19종, 조선전도가 11종이 있다. 주요 지도로는 『여지전도』와 『혼천전도』, 『황도남향성도』, 『황도북향성도』, 『천상열차분야지도』, 『천문도』가 있다. 조선전도로는 『조선팔도고금총람도』, 『대한제국지도』, 도성도로 『수선전도』, 『도성도』, 『경성부시가강계도』 등이 있다. 간송미술관에는 47종의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자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연구소에서 발행한 목록집을 통해 볼 때 대부분 천하도가 삽입된 도별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온양민속박물관에는 14종의 고지도가 있으며 그중 도별도가 4종이다. 경기도 박물관에는 13종의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묘지도와 산도이다. 국립민속박물관에는 5종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2종의 군현 지도책외에 『천문도』, 『평안도전도』 등이 있다. 호암미술관에는 『천하고금총도』가 있다. 김수홍이 제작한 지도로 추

정되나 제1폭 지도는 바다에 파도 문양이 없다. 이외에 정상기형 도별도인 『동국지도』와 『해동도』가 있다.

부산시립박물관에는 3종의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부산고지도』는 지본담채의 10폭 병풍으로 되어 있다. 부산이 개항된 이후 제작된 지도로 부산의 각 장소들이 실경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경상도 좌수영관아배치도』는 좌수영성지의 관아 배치 상황을 그린 지도이다. 부산근대역사관에 전시된 『포산항도』는 개인소장 유물로 개항 당시 용두산 일대를 상세하게 그린 지도이다. 국립 전주 박물관에는 『전주부지도』, 『완산부지도십곡병풍』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 남해 아천박물관에는 『남해지도』가, 양산대성암에는 조선전도로 1종이 있다. 김해대성박물관에 『김해부내지도』가 있다. 학봉책박물관에는 유럽식 근대지도와 함께 정상기류 도별도가 있다. 이외의 개인 소장으로 『청북변성도』, 『고려중요처도』가 고창에 소장되어 있으며 전주에는 『도성전도』와 『수선전도』 등이 있다.

표 11. 국·공립·개인박물관 소장 군현지도 및 대축척전도

소장기관	유형	지도명	유물번호	서지사항
국립중앙박물관	군현지도책	『忠淸道地圖』	本-11650	1리 방안식 지도(추정), M-109
	대동여지도	『東輿』	M-127	14첩·채색필사본
		『大東輿地全圖』	M-133	22첩, 채색필사본
		『大東輿地圖』	書-521	21첩, 흑백목판본(甲子本 推定)
서울역사박물관	대동여지도	『東輿圖』	시립 3069-1	22첩·면지명 추가
		『大東輿地圖』	시립 3078-1	22첩, 채색필사본
간송미술관	군현지도책	『小華輿圖』	없음	5책, 회화식 지도
	청구도	『輿地圖』	없음	(上下)2책(청구도 추정)
국립민속박물관	군현지도책	『各邑圖』	없음	황해도·평안도
		『宦遊帖』	없음	14개 군현 지도
거창박물관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없음	21첩, 채색목판본(甲子本)
양산대성암	조선전도	『東輿備攷』	없음	책자식 조선전도

(2) 군현지도책 및 대축척전도

국·공립 박물관이 소장한 군현지도책 및 대축척전도는 표 11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충청도지도(本-11650)』는 1리 방안식 군현지도로 보이며 다른 지도(M-109)와 분리되어 소장되어 있다. 대축척전도는 4종이 있다. 그중 『동여(M-127)』는 채색 필사본의 대축척전도이다. 지도는 28첩으로 구성된 『청구도』의 각 2첩을 1첩으로 만들어 14첩으로 구성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필사본 『대동여지전도』와 함께 지도 발달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대동여지전도(M-133)』는 채색 필사본의 지도로 모사 수준이 비교적 낮다. 『대동여지도(書-521)』는 22첩의 목판본 지도로 다른 지도와 유사하다. 『동여도(新-3659)』는 22첩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로 규장각본과 동일하다. 서울역사박물관에는 대축척전도로 『동여도(시립 3069-1)』와 22첩의 채색 목판본 지도인 『대동여지도(시립 3078-1)』가 있다.

간송미술관²⁰⁾에는 회화식 군현지도책인 『소화여도』가 있다. 5책, 338면으로 되어 있고, 각 책을 오형으로 분류하여, 제1책 경상도, 2책 전라도, 3책 경기도, 충청도, 4책 황해도, 평안도, 5책에는 강원도, 함경도 군현지도를 수록하였다. 『여지도』는 상하 2책으로 구성

되어 있고, '金正浩(朝鮮)作'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도』의 이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각읍도』는 황해도, 평안도의 군현지도집으로 1책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유첩』은 1첩 14장으로 구성된 군현지도첩이다. 홍기주(洪岐周)가 그린 지도로 제작 연대는 1865-1892로 추정되고 있다. 거창 박물관의 『대동여지도』는 갑자년 수정본이며 21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성암의 『동여비고』는 속종조 때 제작된 대축척 조선전도이다.

2) 대학 박물관

(1) 소장 고지도 유형

대학 부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의 유형은 표 12와 같다. 10개 기관에 약 370종의 지도가 있다. 일본인이 그린 지도와 함께 도별도가 가장 많으며 관방도 중 주제도가 49종, 전도가 34종, 세계지도가 27종이 있다. 가장 많은 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영남대 박물관이다. 박물관이 설립되면서 이전에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지도를 이관받았다. 주요 지도로는 『연혁도칠폭(10278)』이 있다. 조선 역대 7국의 역사 지리도로 지명과 고지명을 병기하였다. 이중 『고구

표 12. 국내 대학 박물관 소장 고지도 유형

소장기관	종수	세계지도	동아시아 지도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주제도	일본인 지도	분류 미상
영남대 박물관	150	2	4	4	35	21	13	67	4
성신여대 박물관	67	10	7	11	22	3	8	6	-
고려대 박물관	46	4	2	5	12	10	12	1	-
육사 박물관	32	3	-	6	11	3	9	-	-
송실대 박물관	23	4	2	4	10	2	1	-	-
경희대 혜정 박물관	28	2	3	2	3	3	2	13	-
서울시립대 박물관	10	-	-	-	-	-	-	10	-
서울대 박물관	9	2	-	2	1	3	1	-	-
동아대 박물관	4	-	-	-	-	1	3	-	-
성균관대 박물관	1	-	-	-	-	1	-	-	-
계	370	27	18	34	94	47	49	97	4

려국도』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일치한다. 기증을 통해 소장된 일본인 지도가 67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도시를 그린 지도가 많이 소장되어 있어 당시 지역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영남대 박물관에 이어 지도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은 성신여대 박물관이다. 일찍부터 고지도를 수집하여 중요한 고지도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 천문도 관련 고지도가 비교적 많이 있으며, 세계전도로 『곤여전도』 및 수종의 도별도가 있다. 이중 『동국팔로분지도』는 이전의 정상기형 동국지도와는 다른 유형으로 주목할 만한 지도이다. 동일한 내용의 지도가 규장각에 있다.

고려대 박물관²⁰⁾에는 46종의 고지도가 있으며 이중 도별도와 관방도가 비교적 많다. 세계지도로 『곤여전도』가 있으며, 『지구전후도』는 천문도인 『황도남북향성도』와 함께 병풍식으로 되어 있다. 『여지전도』는 남북아메리카를 제외한 구대륙지도를 그렸으며 송실대본과 동일한 내용이나 채색되어 있다. 이외에 『동경도』는 동아대 박물관에 소장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창덕궁과 창경궁 및 후원을 그린 궁궐도이다. 육사박물관에는 32종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고, 도별도와 관방도의 비중이 높다. 관방 지도로 『각도 마필 분포도』, 『정방 산성도』, 『조선국 봉수도』, 『조선국 병비도』 등이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의 전투 상황을 그린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가 소장되어 있다.

송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 박물관²¹⁾에는 23종의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고 이중 도별도가 10종으로 가장 많다. 이곳에 소장된 『양의현람도』는 1603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가 그린 세계지도를 이용시(李應試)가 목판으로 인쇄한 8폭 병풍 지도이다. 1604년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황동명이 천주당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 유일본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중국에서 이본이 발견되었다. 이외의 세계지도로 『지구전후도』와 『여지전도』가 있다. 관방도인 『요계관방지도』는 10폭 병풍으로 그려진 것으로 규장각본과 내용이 유사하다.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은 2005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고지도 전문 박물관이다. 기증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유럽식 지도 등 900여 도엽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일본인 지도들이 적지 않게 소장되어 있으며 이외에 세계지도, 중국도, 도별도 등이 소장되어 있다. 도별도 중 『경기도(0934)』, 『강원도 지도(0944)』 및 『평안도와 함경도(0945)』의 경우 각 군현의 내용이 방안식 군현지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방안식 지도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서울시립대 부설 박물관은 비교적 최근부터 지도 수집이 이루어졌다. 여러 종의 지도가 있으나 대부분 일

표 13. 대학박물관 소장 군현지도책 및 대축척전도

소장기관	유형	지도명	유물번호	내용 및 비고
영남대 박물관	군현지도책	『嶺南地圖』外	10196-10203	1리 방안식 지도 수정본
성신여대 박물관	군현지도책	『輿地大全圖』	7-마-26	1책(경기도), 회화식지도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7-마-20	22첩, 보물로 지정
		『海左輿圖』	7-마-65	20첩(2첩 缺)
고려대 박물관	군현지도책	『東國輿圖』	2664	7책, 채색필사본,
숭실대 박물관	청구도	『靑邱圖』	없음	(乾·坤) 2책

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이다. 1910년 이전의 지도는 10종이 있으며, 이들도 일본 근대 지도이다. 당시 조선의 지역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다. 서울대 박물관에는 9종의 지도가 있다. 대표적인 지도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곤여만국전도』가 있다. 채색 필사본의 8쪽 병풍식으로 되어 있으며 마테오리치의 회입본 『곤여만국전도』를 1708년(숙종 34)에 조선 관상감에서 모사한 것이다. 이외에 『해좌전도』와 『평양도십폭병풍』, 『진주도십폭병풍』, 『강화도지도』, 『남해안도십폭병풍』 등이 있다. 동아대 박물관에는 회화식 지도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 『동궐도』는 고려대 박물관본과 동일하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동래고지도』는 당시 부산을 그린 전형적인 회화식 지도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인 『부산동래고지도』와 구도가 유사하다. 이외에 『진주도』, 『거제도도』 등이 있다. 성균관대 부설 박물관에는 10폭으로 된 『평양지도』 병풍이 소장되어 있다.

(2) 군현지도책 및 대축척전도

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군현지도책과 대축척전도는 표 13과 같다. 영남대 박물관에는 6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현지도책이 있다. 이들 지도 중 『영남지도』는 1682-1767년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지도의 표현 양식과 내용 등이 규장각 소장 비변사인 1리 방안지도와 거의 유사하나 방안 표시는 생략되어 있다. 규장각본이 대형으로 제작되어 휴대와 열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책자의 형태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지도 뒷면에 한양까지의 거리, 사방 경계, 군현내 각 지역의 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규장각본과 내용이 동일하다.

성신여대 박물관에 소장된 『대동여지도(7-마-20)』

는 국내에 소장된 대동여지도 중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해좌여도(7-마-65)』는 목판본 대동여지도로 22첩중 2첩이 누락되어 있다. 각 첩마다 해당 군현의 간단한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여지대전도(7-마-26)』는 경기도의 각 군현을 그린 회화식 군현지도이다. 『요계관방도』, 『북경지도』를 수록하고 이어서 『조선지도』, 『경기도지도』 다음에 각 군현지도를 수록하고 있다. 고려대 박물관의 『동국여도(2664)』는 7책으로 구성된 군현지도책으로 내용은 고려대 도서관의 『지도초』와 유사하다. 숭실대 박물관에 소장된 『청구도』는 건·곤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색 필사본 지도로, 내용은 고려대본 『청구도』와 유사하다.

5. 기관별 고지도 관리 및 관련 사업

기관에서 고지도가 수집되면 보존 처리를 통해 대부분 향온·항습 기능을 지닌 수장고에 보존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후 서지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이 작성되고 및 전문 인력을 이용하여 해제 사업을 통해 해석된 이후 원본이나 복제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다. 따라서 각 기관의 고지도 관리와 관련 사업은 보존, 전시, 목록 및 도록집 간행, 열람 서비스 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내용은 기관의 유형 및 예산 규모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고지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록집 간행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사업으로 원본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1) 고지도 관리 및 간행 사업

(1) 도서관

①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의 고지도는 과거에는 서울대 도서관에 보존되었으나 1990년에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유물 보존 기능을 갖춘 수장고에서 보존되고 있다. 매년 8월 건물 전체의 훈증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 인력으로 사서 및 학예연구사(이하 '학예사')가 있으나 고지도 관련 사업은 역사 지리학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에 의해 관리되는 유일한 곳이다.

고지도 소장 기관 중 전시회, 간행 사업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규장각에서 발행한 고지도 관련 목록과 도록집은 표 14와 같다. 일제 강점기 중인 1932년 당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한국의 고지도에 관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106종의 지도를 소개한 목록집을 최초로 편찬하였다. 법문학부에서는 2/3로 축소된 「대동여지도」의 영인본을 발간하였다. 규장각에서 고지도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계기는 1995년 「해동지도」가 삼성문화재단의 지원에 의해 출간되면서부터이다. 이 사업은 1993년 지리학 전공의 연구원들이 작성한 고지도 목록 및 해제집이 바탕이 되었다. 이후 년차별로 「조선 후기지방지도」(1996-2002), 「동여도」(2003), 「조선전도」(2004), 「조선지도」(2005) 등의 출간 사업이 문화관

광부의 지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원판 필름을 통해 이미지를 보존하고 있으며 복제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 및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지도는 대부분 귀중본으로 분류되고, 고전 운영실에서 사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향은·향습 기능을 갖춘 수장고에 보존되고 있으며 매년 소독을 실시한다. 고지도 목록집 편찬 사업은 규장각과는 달리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서 목록집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 「청구도」 등의 일부 지도를 복제하여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4년에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이미지 보존 사업이 실시되었다. 약 3,000매의 필름이 확보되어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촬영된 필름을 이용하여 2006년에는 「해동여지도」를 영인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표 15 참조). 다른 기관과는 달리 외국 기관 소장 한국 고지도 자료의 영인 사업을 시행하여 복사본이나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방문자에게 열람된다.

장서각에 소장된 고지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신인 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되면서 1981년 문화재관리국이 관리하고 있던 '장서각' 소장 고지도를 이관받은 것이다. 이후 부분적으로 구입과 가증을 통해 고지도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초기에 도서관 기능으로 건립되어 보존 환경은 뛰어나지 못하나 최근 신장서각

표 14. 규장각 소장 고지도 관련 목록 및 도록집

간행 기관	연도	목록 및 도록집	수록 내용 및 비고
京城帝大 圖書館	1931	「朝鮮古圖書展觀目錄」	지도 5종 서지내용 수록
京城帝大 圖書館	1932	「朝鮮古地圖展觀目錄」	지도 106종 서지내용 수록.
서울대圖書館	1971	「韓國古地圖展示會出品目錄」	
奎章閣	1993	「奎章閣古地圖目錄」	246종 해제·비매품
奎章閣	1993	「奎章閣古地圖解題」(1)	68종 해제·비매품
奎章閣	1995	「海東地圖」	삼성문화재단 지원
奎章閣	1996-	「朝鮮後期 地方地圖」	2002년까지 도별 지도 영인
奎章閣	2003	「東輿圖」	해제 및 지명 색인 포함
奎章閣	2004	「朝鮮全圖」	47종 도판 소개(해제 및 지명)
奎章閣	2005	「朝鮮地圖」	해제 및 지명 색인 포함

표 15.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 소장 고지도 관련 목록 및 도록집

간행 기관	연도	목록 및 도록집	수록 내용 및 비고
國立中央圖書館	2006	『海東輿地圖』	1·2책 영인
藏書閣	1993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輯-地理類(Ⅰ)』	지리류 및 부도 해제
藏書閣	1994	『韓國學資料叢書』Ⅱ	『我國輿地圖』해제
藏書閣	1995	『藏書閣圖書解題 Ⅰ』	지리류 및 부도 해제
藏書閣	2002	『朝鮮王室의 冊』	지리류 및 부도 해제
藏書閣	2005	『朝鮮王室의 行事그림과 옛地圖』	박정혜·이예성·양보경 저
藏書閣	2005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地理類(Ⅱ)』	지리류 및 부도 해제
藏書閣	2006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輯-地圖類』	고지도 해제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에 있다. 고지도의 반출, 열람은 사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고지도 관련 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3년 소장 도서중 지리류의 해제 과정에서 주로 읍지 부도의 지도가 소개되었으며(표 15), 1994년에는 녹둔도 일대를 그린 「아국여지도」를 소개하였다. 2002년에 『조선왕실의 책』에서 「월중도」, 「지규루도」 등의 왕실 능도와 군현지도책인 「지도」, 「아국여지도」가 도판으로 일부 소개되었다. 2005년에는 왕실의 회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10여종의 지도와 함께 「영남도」가 소개되었다. 2006년에는 소장 고지도만을 대상으로 해제집이 발행될 예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간행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③ 대학 도서관

대부분의 대학 부설 도서관에 소장된 고지도는 고전관련실에서 고전 전문 사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일부 도서관의 경우 향운·향습 기능을 갖춘 수장고에서 보존되고 있다. 고전 자료의 분류가 대부분 경사자집사부(經史字集 四部)로 되어 있고 이중 고지도는 지리류와 함께 사부(史部)에 속하고 있다. 근대 지도와 지도 영인본은 과학자료실이나 참고실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별도의 고지도 목록집을 편찬하는 경우가 드물며 고서 목록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지도 관련 사업은 예산상의 이유로 매우 부진하며, 국·공립도서관과는 달리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촬영을 통한 고지도의 이미지의 보존사업은 고려대와 부산대 도서관에서만 이루어졌다. 부산대 도서관의 경우 2004년 교육부의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소장 고지도 4종, 212도엽에 대해 원판 필름으로 촬영하여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 도서관의 경우 2005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외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대부분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하여 방문자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박물관

① 고지도 관리

박물관의 고지도 관리 방법은 도서관과 매우 다르다. 학예사에 의해 관리되며, 대부분 회화자료로 분류되어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과학 자료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귀중본 자료로 분류하는 것은 도서관과 유사하나 보존에 비중을 두고 있어 원본 열람 절차는 도서관에 비해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장고는 대부분 향운·향습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미지 보존을 위한 필름 촬영 사업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원본 촬영 의뢰가 들어올 경우 부분(副本)을 요청하여 보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필름 촬영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파일로 직접 생성되었다. 따라서 해상도가 높지 않아 원본 이미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열람 서비스를 위한 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매우 드물다.

표 16.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 소장 고지도 관련 목록 및 도록집

간행 기관	연도	목록 및 도록집	수록 내용 및 비고
嶺南大 博物館	1998	『韓國의 옛地圖』	박물관 소장 고지도 수록
誠信女大博物館	2004	『地圖와 地圖 그리기』	지도류 17종 수록
서울歷史博物館	2002	『서울 - 하늘·땅·사람』	역사 기록도 등 122종 수록
서울歷史博物館	2004	『Corea 꼬레아』	서양 고지도 85도판 수록
서울歷史博物館	2004	『都城大地圖』	실물 크기 영인본
서울歷史博物館	2006	『李燦 寄贈 우리 옛地圖』	이찬 기증 고지도 115종 수록
서울市立大博物館	2004	『땅의 흔적, 지도이야기』	박물관 소장 고지도 수록
慶熙大 해정博物館	2005	『月曆』	연차별 12매 수록
國立中央博物館	2006	『東輿』	영인 보급(예정)
梁山 大聖庵	1998	『東輿備攷』	경북대출판부 영인

② 간행 사업

박물관의 고지도 도록은 소장품의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간행되는 경우가 많다. 표 16은 박물관에서 소장 고지도를 이용하여 제작된 도록집이다. 소장 고지도를 대상으로 간행된 도록집은 1994년 영남대 박물관이 발간한 『한국의 고지도』가 효시이다. 소장 고지도 100여 종을 대상으로 상세한 해제 및 고지도 발달사와 함께 수록한 지도책이다. 성신여대 박물관에서는 전시회와 함께 『지도와 지도 그리기』라는 도록집을 편찬하였다. 17종의 고지도를 소개하면서 현대 미술가들에 의해 재해석을 시도한 도록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었으나 도록집 편찬을 통한 고지도 소개 사업을 활발히 하는 기관이다. 2002년 『서울-하늘·땅·사람』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도록을 제작하였다. 이 도록에는 역사 기록도를 포함하여 관련 지도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2004년에는 기증 자료를 바탕으로 『Corea 꼬레아』 도록 편찬을 통해 유럽식 지도를 소개하였으며 같은 해에는 『도성대지도』를 실물 크기로 영인하여 보급하였다. 2006년에는 이찬 교수 기증 지도를 중심으로 도록집을 편찬하였다.

서울 시립박물관에서는 2004년에는 소장 고지도를 수록한 『땅의 흔적, 지도이야기』를 편찬하였고, 이를 CD와 함께 보급하였다. 경희대 해정박물관에서는 소장 고지도를 이용하여 매년 월력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동여』의 영인본을 제작하여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1998년 발행된 양산대성암 소장 『동여비고』 지도첩은 경북대 출판부에서 기획되어 발행된 것이다.

고지도 도록과는 달리 박물관에서 소장품 도록집을 제작하면서 고지도가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다. 표 17은 박물관에서 편찬한 소장 유물 도록에서 고지도를 수록한 책자이다. 1989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고회화명품도록』에서는 『동경도』 1점만이 소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5년 발행한 『개관기념도록』에서는 적은 분량이지만 일정 지면을 할애하여 고지도를 소개한 것이 주목된다. 이외에 동아대 박물관의 소장품 도록에서는 4종의 소장 지도 전체를 부분도와 함께 수록하였다. 성신여대 박물관 도록에서는 약 1/10을 지도 유물로 할애하여 수록하였다. 숭실대 박물관의 도록에서는 전체 579매의 도판 중 40매를 수록하고 있어 비교적 상세하다. 호암 미술관에서는 2종을 소개하였다. 한편 『간송문고한적목록』은 도록은 아니나 자체 전시회에서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소장 지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2) 고지도 정보화 사업

2000년대 이후 문화관광부의 정보화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유물 이미지 서비스 사업은 일반인들이 고지도

표 17. 고지도가 수록된 박물관 출판 도록

간행 기관	연도	목록 및 도록집	수록 내용 및 비고
潤松美術館	1967	『潤松文庫漢籍目錄』	소장 지도 47종 상세 서지정보
高麗大博物館	1989	『古繪畫名品圖錄』	동결도 1종
國立光州博物館	2002	『朝鮮時代 風俗畫』	지도 2종
國立民俗博物館	2004	『한반도와 바다』	해양 관련 지도 21종
國立中央博物館	2002	『高麗·朝鮮의 對外交流』	지도 11종 및 일본지도
國立中央博物館	2005	『開館記念 圖錄』	총 367쪽중 지도관련 7쪽 할애
國立晉州博物館	1998	『壬辰倭亂』	임진왜란 관련 지도 4종
國立晉州博物館	2003	『忠武公李舜臣』	충무공 관련 3종 지도
東亞大 博物館	2001	『所藏品 圖錄』	진주도, 부산포도 등 지도 3종
釜山近代歷史館	2003	『所藏品 圖錄』	일본인 지도 9종
釜山市立博物館	2002	『釜山の 歷史와 文化』	지도 7종
誠信女大博物館	2002	『博物館 名品圖錄』	296종 중 지도 25종
誠信女大博物館	1984	『博物館 圖錄』	187종 중 지도 17종
誠信女大博物館	1997	『博物館 圖錄』	200종 중 지도 21종
崇實大 博物館	2004	『移轉開館記念 圖錄』	도판 579매중 지도 40종
湖巖美術館	1996	『湖巖美術館名品圖錄Ⅱ』	지도 2종
화봉책박물관	2005	『民族과 領土』	지도 64종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각 기관들의 예산 지원기관이 상이하고 자료의 분류 체계가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표 18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 소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지도 이미지의 서비스 내용이다.

① 도서관

소장 기관 중 고지도 정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은 규장각으로 19종의 군현지도책과 대축척전도 등의 이미지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지도 원본과 함께 지명 및 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도의 해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지리정보도 가장 상세하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2.0~3.0M(bmp 파일 기준)의 자료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지도 정보화 사업은 2000년대 이후 문화관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며 행해졌다. 이 사업은 고지도 관리 부서인 고전 운영실과 별도로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 2004년 촬영된 원판

필름의 일부를 디지털화하여 수록 지명, 해제 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되고 있는 지도의 종수는 규장각보다 많으나 서버 용량의 한계로 해상도는 낮은 편이다. 이미지는 출력만 가능하며 파일 제공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다. 장서각에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된 이미지를 해제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흑백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실용적이지 못하다. 국사편찬위원회와 대학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서지 정보만 공개되어 있고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② 박물관

박물관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미지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의 크기가 50~300kb에 불과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국·공립 박물관 중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불과 1개의 이미지만 공개되어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해제와 함께 2종의 고지도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다. 국·공립 박물관 중

표 18. 웹을 통한 고지도 공개 현황(2006.2) 웹을 통한 고지도 공개 현황(2006.2)

번호		소장 기관	URL	해제	이미지	해상도(JPG.)	
도서관	국공립 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http://e-kyujanggak.snu.ac.kr	○	19책	2.0-3.0M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수종	다운 불가	
		장서각	http://lib.aks.ac.kr	○	×	마이크로필름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	×	서지 정보제공	
	대학	각 대학도서관	각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	×	×	서지 정보제공	
박물관	국공립 · 개인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	1	60-120kb	
		국립전주박물관	http://jeonju.museum.go.kr	○	2	60-120kb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	19	100-200kb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	79	200-400kb	
		부산시립박물관	http://museum.busan.kr	×	4	60-180kb	
		경기도박물관	http://www.musenet.or.kr	×	15	60-150kb	
		온양민속박물관	http://www.onyangmuseum.or.kr	×	10	10-20kb	
			호암미술관	http://www.hoammuseum.org	○	3	300-500kb
	대학 부설 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http://museum.snu.ac.kr	○	4	100-200kb
			고려대학교 박물관	http://museum.korea.ac.kr	○	46	50-100kb
			성신여대 박물관	http://museum.sungshin.ac.kr	○	62	800kb-1.2M
			숭실대학교 박물관	http://www3.ssu.ac.kr/museum	○	52	500kb-1.5M
			동아대학교 박물관	http://museum.donga.ac.kr	○	17	60-500kb
		육군 박물관	http://museum.kma.ac.kr	○	50	70-200kb	
	성균관대 박물관	http://museum.skku.ac.kr	○	4	1.1-1.3M		
		해정박물관	http://oldmaps.khu.ac.kr	×	53	80-120kb	

비교적 충실하게 구축된 곳은 서울역사박물관이다. 79개의 이미지를 해제와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해상도도 다른 기관에 비해 비교적 높다. 부산시립박물관과 경기도 박물관은 이미지가 제공되나 지도 해제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대학 부설 박물관은 국·공립 박물관에 비해 서비스의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다.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들의 이미지를 가능한 한 전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도마다 해제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고지도 해제의 분량과 해석 수준의 차이는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이미지의 해상도가 비교적 높은 곳은 성신여대와 숭실대 박물관이다. 한편 도록을 통해 소장 고지도 전체가 소개되어 있는 영남대박물관과 서울시립대 박물관에서는 이미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

6. 요약 및 논의

이 논문은 우리나라 각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를 대상으로 소장 지도의 유형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약 1,200종에 달하는 고지도들이 전국 39개 기관에 산재되어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도에서 묘사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들 지도들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기관별 소장 지도의 특성은 군현지도책과 전국 대축척전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어서 기관별 고지도의 관리 실태와 일반에게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소장 기관은 종수로 볼때 도서관과 박물관에 거의 반반씩 나뉘어져 있으며 고지도 유형은 기관의 설립

시기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관별로 볼 때 규장각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영남대 박물관이, 고려대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순이다. 그러나 도엽수로 볼 때에는 군현지도책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규장각이 1위이며 이어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 도서관 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국·공립 기관이다.

군현지도책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고려대 도서관, 영남대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약 25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외에 2-3개 기관에 산재되어 있다. 회화식 군현지도책은 주로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20리 방안식지도책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도서관에 있다. 이들 대부분 지도는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해동여지도』와 『동국지도 3』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1리 방안을 바탕으로 그려진 비변사인 지도는 규장각, 장서각, 영남대박물관에 있다. 규장각에는 1872년 제작된 지방군현지도가 있다. 대축척전도 중 『청구도』는 전국 각 기관에 10종이 있다. 이들 지도는 표제, 구성, 지도 묘사 방법 등이 상이하다. 『대동여지도』는 26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 볼 때 1861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제작된 필사본 지도, 목판본 『대동여지도』(신유본과 갑자본), 이후 모사된 필사본으로 분류된다.

고지도의 보존·정리·열람 및 공개 등의 관리 실태에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귀중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도서관과 박물관의 관리 방법은 매우 다르다. 도서관 자료는 사서에 의해 관리되고 사부(史部) 지리류로 분류되어 취급된다. 일부 도서관의 경우 과학 및 천문 자료에도 속해 있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별도의 목록집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 회화자료로 분류되어 있고 일부는 과학 자료에 속하기도 한다. 두 기관의 이와 같은 차이는 도서관은 고지도를 서지자료로서 열람 서비스를, 박물관은 유물자료로서 보존을 중시하여 관리되기 때문이다.

도록 간행과 정보화 사업을 통한 지도의 일반 공개는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도서관 중

간행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기관은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이며 다른 기관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의 경우 전시회를 통해 도록집을 발행하고 있으며 소장 유물 도록집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정보화 사업을 통해 고지도 이미지를 공개하는 사업은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기관에서 제공되는 지도의 해상도는 비교적 높고 동시에 지명과 해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어 고지도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 도서관은 대부분 서지사항만을 중심으로 공개되어 있다. 박물관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나 자료의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의 두 기관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고지도 복제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고지도의 촬영을 통해 이미지의 영구 보존과 열람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2003년부터 많은 박물관에서 정보화 사업을 통해 고지도 촬영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디지털 파일로 직접 생성되어 원본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필름 촬영 후 변색되기 전에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야 하나, 이 작업을 하는 기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고지도는 유물 성격을 지닌 서지 자료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기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로, 고지도 서지 정보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고지도 자료가 고서, 고문서 혹은 회화류 등으로 간주되면서 소장 기관에 따라 서지 정보는 각각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실제로 고지도의 서지 형태는 다른 사료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고지도가 종합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지도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분류 체계 및 서지 정보 기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로, 고지도는 귀중본으로 취급되어 원전 접근이 매우 어렵다. 보존을 위해 일부 기관에서 복제본을 통하여 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예산상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유물의 원본 복제 개념으로 간주되어 높은 비용을 수반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쇄 기술의 변화는 적은 비용으로 원본 못지 않는 출력물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들 영인본은 원본의 재질이나 사용 재료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도의 묘사 방법이나 지명 판독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 정보화 사업을 통해 얻어진 필름의 디지털화를 통해 영인본을 만들 경우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고지도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고지도의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는 중앙 부처가 상이다. 국·공립 도서관과 박물관은 문화관광부, 대학 도서관은 교육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대학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부 혹은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는다. 반면에 시립 박물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다. 또한 동일 기관이더라도 인건비, 유물 관리 등의 보존, 도록 출판 등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이 지원 기관이 서로 다른 것은 고지도 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로, 가장 큰 문제는 지도 전문 인력의 부재이다. 국내 각 기관에서 고지도 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된 곳은 전국 39개 기관중 3곳뿐이다. 규장각의 경우 지리학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 1인이 비정규직으로 고지도 정보화 및 간행 사업의 기획을 전담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해정박물관의 경우 역사학을 전공한 학예사와 전임교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다른 기관에는 지도 전문 연구원이 전무하다. 대부분의 외국 도서관에는 전문 사서와 함께 지도실이 있어 국가나 지역 사회에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기능이 전혀 없다. 도서관에서 지도가 서지 형태에 따라 여러 공간에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 인력이 없음에 따라 고지도 자료는 도서관에서는 고서나 고문서의 주변 자료로, 박물관에서는 도자기나 회화의 주변 자료로 취급받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의 지도 해석 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리 환경이 고지도의 활발한 연구와 심도있는 분석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전국 각 기관에 소장된 고지도의 정보를

종합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적지 않은 고지도가 조사에서 누락되었을 것이며 또한 개인 소장으로 남아 있는 고지도가 적지 않게 있다. 이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소장 고지도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謝辭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소장 고지도 자료를 제공해 준 여러 기관의 실무자들과, 교류 교수(2005.9-2006.8)로 재직시 연구 활동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註

- 1) 필자는 2004년부터 3년에 걸쳐 부산광역시의 의뢰로 전국 도서관·박물관에 소재한 부산 관련 고지도의 촬영과 정리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 2) 이 DB는 2003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었으나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다.
- 3) 당시 이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으로는 이찬, 양보경 교수와 이우형, 성남해 선생이었다.
- 4) 필자는 2004년 1월 자원봉사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보화사업으로 촬영한 4×5" 원판 필름 약 3,000여매의 라벨링 작업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목록보다 훨씬 많은 고지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교류 교수로 재직하였던 한국학 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장서각 소장 고지도에 대한 세미나(2006년 1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다.
- 5) 국편 DB에서는 기관에 따라 군현지도책을 한 종류로 취급하거나 혹은 각권을 별도의 종류로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권으로 된 군현지도이나 도별 지도책은 단일 종류로 취급하였다. 또한 규장각의 경우 1872년 제작된 지방 군현지도의 경우 458종으로 정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동일 종류로 취급하였다.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관별로 첩, 책, 권, 축 등으로 매우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소장 고지도의 양은 정확한 도엽수를 바탕으로 되어야 하나 이 자료에서는 도엽수 산정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군현지도책등을 제외하고는 국편 DB에서 조사된 기준을 따랐다.

- 6) 이들 지도 중 읍지 부도, 역사기록도 및 유럽에서 동판으로 대량 제작된 고지도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7)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2002년 이찬 교수가 기증한 115종의 고지도외에도 많은 기증 고지도가 있다. 이 기관의 실제 소장 중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8) 이 DB는 소장 기관별로 나열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자료 정리체계가 기관별로 상이하여 이를 재구성하여 지도를 유형화하였다.
- 9) 이 조사 결과의 일부를 대상으로 보고된 글로는 양보경(1997)이 있다.
- 10) 조선시대 천문도는 대부분 세계 지도와 함께 제작되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가 이 경우에 해당하며 숙종 때 「곤여만국전도」모사와 함께 만들어진 「진상관여도」도 동일하다. 또한 최한기의 「지구전후도」는 「황도남북항성도」와 같이 제작되었다. 이는 천문과 지리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문도만을 대상으로 볼때 「천상열차분야지도」, 17세기 이후 조선에 유입되어 들어온 서양식 천문도, 그리고 19세기 초에 제작되어 보급된 「혼천전도」 계열로 구분된다.
- 11) 규장각은 조선 후기 1776년(정조 원년) 창덕궁안에 설치되었던 왕실 도서관이다. 일제가 강점하면서 이름이 없어지고 1911년 조선총독부 취조국으로 소장 자료가 이관되었다. 1922년에는 학무국에 이어서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으며 1945년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 12) 이 지도는 중국 선교사 페르비스트(Verbiest, Ferdinand 南懷仁, 1623~1688)가 1674년 북경에서 판각한 것을 1856년 광둥(廣東)에서 재판하였으며 4년 뒤인 1860년(철종 11) 우리나라에서 중간(重刊)한 세계지도이다. 1674년 발행된 「곤여전도」는 8쪽의 병풍이나 규장각 소장 지도는 6쪽 지도이다.
- 13) 국립중앙도서관은 일제 강점기인 1923년 소공동 옛 남별궁터에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시작되었다. 광복되면서 국립도서관으로 되면서 자료를 이관받았다.
- 14) 한말 집현전, 홍문관, 규장각 등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1908년 고종은 장서각 건립계획을 추진하였다. 일제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의 황실령에 따라 황실 사무를 관장하는 이왕직 관제를 새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역대 왕들의 어제(御製) 및 선원보책(璿源譜冊) 외에 각 군영으로부터 모은 구위대 수장도서, 무주 적산산 사고에서 이관받은 도서들을 중심으로 1911년 이왕직 장서각으로 이관되었다. 1915년 창경궁 안에 장서각을 새로 짓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 광복 이후 1955년 창경원 사무소 장서각이 관리하였다. 1969년 문화재관리국으로 이관되었다가 198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으로 옮겨졌다.
- 15) 국사편찬위원회는 광복직후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인수받아 1946년 경복궁의 집경당에

서 국사관으로 발족하였고, 1949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16) 「광여도」의 경우 경상도의 군현지도는 비변사인 1리 방안 지도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 17) 울릉도 부분에 1900년 울도군 설치와 관련한 칙령의 내용이 첨기되어 있다.
- 18) 국립중앙박물관은 1915년 경복궁 안의 미술관을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바꾸어 개관하였으며 1945년 12월 이를 인수하여 개관한 박물관이다.
- 19) 서울 역사박물관은 과거 경희궁지 내의 부지에 2002년 개관한 서울시 시립박물관이다. 역사가 짧으나 기증을 통해 많은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다.
- 20)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박물관으로 1966년 전형필 선생의 수집품을 바탕으로 한국민족미술연구소 부설 미술관으로 설립되었다.
- 21) 고려대 박물관은 1934년 국내 대학에서 최초로 설립된 박물관으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었다.
- 22) 숭실대 박물관은 1948년 서울 남산의 일제 조선신궁터에 '기독교박물관을 세운 것이 효시이다. 고지도에 관심이 많았던 김양선 교수에 의해 중요한 고지도들이 많이 소장되게 되었다.
- 23) 서비스되고 있는 지도로는 「광여도」, 「해동지도」, 「1872년 지방군현지도」, 「여지도」, 「안동도회좌통지도」, 「경주도회좌통지도」, 「비변사인방안지도」, 「조선지도」, 「팔도군현지도」와 대축척전도로서 「동여도」, 「청구도」, 「청구요람」, 「대동여지도(목판본)」, 노벌도로 「동국여지도」, 「동국지도」, 「여지도」, 「지도」, 「동국여지승람」, 「조선지도」이 있다.

參考文獻

- [고지도 관련 도록 및 목록집]
- 江華郡, 2003, 「江華의 옛地圖」.
- 京畿文化院, 2005, 「京畿道の 옛地圖」.
- 京城帝大 圖書館, 1931, 「朝鮮古圖書展觀目錄」.
- 京城帝大 圖書館, 1932, 「朝鮮古地圖展觀目錄」.
- 慶熙大 해정博物館, 2003-2005, 「月曆」.
- 國立中央圖書館, 2006, 「海東輿地圖」.
- 國立中央博物館, 2006, 「東輿」.
- 國立地理院, 1979, 「韓國古地圖目錄」.
- 國史編纂委員會, 1995, 「韓國古地圖目錄 DB」.
- 奎章閣, 1993, 「奎章閣 古地圖 目錄」.
- 奎章閣, 1993, 「奎章閣 古地圖 目錄」.
- 奎章閣, 1993, 「奎章閣 古地圖 解題」.(I)

奎章閣, 1995, 『海東地圖』.
 奎章閣, 1996-2002, 『朝鮮後期 地方地圖』.
 奎章閣, 2003, 『東輿圖』.
 奎章閣, 2004, 『朝鮮全圖』.
 奎章閣, 2005, 『朝鮮地圖』.
 唐津郡, 1997, 『唐津의 옛地圖』.
 大韓地理學會, 2000, 『韓國의 地圖-過去·現在·未來』.
 汎友社, 1991,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1994, 『定都 600年 서울 地圖』.
 釜山地理研究所, 2004, 『釜山·慶南 市郡別 古地圖』.
 釜山地理研究所, 2005, 『大邱·慶北 市郡別 古地圖』.
 釜山地理研究所, 2006, 『鴨綠江·豆滿江 古地圖』.
 三省出版社, 1989, 『서울의 古地圖』.
 서울대圖書館, 1971, 『韓國古地圖展示會出品目錄』.
 서울대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市立大博物館, 2004, 『땅의 흔적, 지도이야기』.
 서울歷史博物館, 2002, 『서울-하늘·땅·사람』.
 서울歷史博物館, 2004, 『都城大地圖』.
 서울歷史博物館, 2004, 『Corea 고래야』.
 서울歷史博物館, 2006, 『李燦 寄贈 우리 옛地圖』.
 서울학研究所, 1995, 『서울의 옛地圖』.
 誠信女大博物館, 2004, 『地圖와 地圖 그리기』.
 水源市, 2002, 『水原의 옛地圖』.
 慶北大 出版部, 1998, 『東輿備攷』.
 嶺南大 博物館, 1998, 『韓國의 옛地圖』.
 藏書閣, 1993,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輯-地理類(I)』.
 藏書閣, 1994, 『韓國學資料叢書』. II
 藏書閣, 1995, 『藏書閣圖書解題 I』.
 藏書閣, 2002, 『朝鮮王室의 冊』.
 藏書閣, 2005,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地理類(II)』.
 藏書閣, 2005, 『朝鮮王室의 行事그림과 옛地圖』.
 藏書閣, 2006,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輯-地圖類』.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6, 『濟州의 옛地圖』.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7, 『韓國古地圖』.
 鄉土文化振興院, 1994, 『全南의 옛地圖』.

[논문 및 저서]

김양선, 1972, 매산국학산고 송실대학교 출판부.
 김기혁, 1991, “조선 후기 지도책 『요람집』 분석,” 한국문화연구, 4, 609-631.
 김기혁, 2002, “부산지역 고지도 연구,” 향도부산, 18, 393-455.

김기혁 외, 2005, “조선후기 근현지도의 유형연구 - 동래 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0(1), 1-26.
 김기혁, 2005, “마테오 릿치의 『곤여만국전도』 연구(I),” 지리학논총, 45, 141-164.
 김기혁, 2006, “장서각 소장 고지도의 특성,” 장서각 콜로퀴움 발표문.
 배우성, 1996, 18세기 관찬지도 제작과 지리인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정혜·이예성·양보경, 2005, 조선황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양보경, 1997, “고지도와 역사연구,” 역사와 현실, 25, 263-281. 한국역사연구회.
 양보경, 2006, 이찬 기준 한국고지도의 유형과 의의, 이찬 기준 우리 옛지도, 288-292, 서울역사박물관.
 오상학, 2001, 조선시대의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경열, 1991, 대동여지도의 연구, 성지문화사.
 이 찬, 1981, “한국 고지도에서의 좌표체계,” 한국과학사학회지, 3(1), 3-11.
 이기봉, 2004, “김정호의 『청구도』 제작과정과 지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9(3), 473-493.
 이기봉, 2006, “고지도의 현대적 가치와 자료의 공개방안,” 장서각 콜로퀴움 발표문.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모악실학회총서. 해안.
 전상운, 1994(3판), 한국과학기술사, 정음사.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Harley, J. B. and Woodward D., 1994, *The History of Cartography*, 2-2, The Univ. of Chicago Press.
 Short, J. R., 2003, *The World through Maps; A History of Cartography*, Firefly Books.

교신: 김기혁,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이메일: khkim@pusan.ac.kr, 전화: 051-510-1619)

Correspondence : Kim, Ki Hyuk,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609-735, Korea (email : khkim@pusan.ac.kr, phone : 051-510-1619)

최초투고일 06. 11. 27.
 최종접수일 06. 12. 22.